



도시 청소년들의 보성 적응을 위해 마련된 농어촌유학마을 한마음대회.



보성군이 재능기용사업으로 추진한 예당중학교 '인명국악원악단' 공연 모습.

## 보성 인구소멸위기 극복 ‘골든타임’ 왔다

30년 만의 인구 순유입을 기록한 보성군은 2026년을 인구 소멸위기 극복의 ‘골든타임’으로 정하고, 총사업비 294억원 규모의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시행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22일 보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는 1995년 이후 순유입(+380명)으로 전환됐고, 합계출산율 1.2명(전국 17위), 2025년 출생아 수 12.7% 증가, 별교고등학교 2026학년도 대입 성과(서울대 2명, 의치대 10명), 학생 유입 급증(전입 장려금 전년 대비 3.3배 집행) 등 인구 반등 신호가

군, 지방소멸대응기금 294억 투입...일자리·청년 집중 창업거리·청년활력 플랫폼 등 올해 9개 신규사업 추가

감지되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중 투입한다. 또 2027년부터 2031년까지를 아우르는 중장기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도 함께 수립해 인구 백년대계를 준비할 계획이다.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시행계획은 ‘미

래를 그린! 녹차밭 위에 미래를 그린(Green) 꿈, 보성의 미래를 열다!’를 비전으로 삼고 생활 인구 3000명 증가, 청년인구 500명 증가, 주민만족도 30점 이상이라는 핵심 목표를 설정했다.

군은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해 보성프롤라드 조성사업, 조성 제2

농공단지 조성, 보성 차산업 제도약 전략사업, 녹차마을 위케이션, 그린느린마을, 보성청년자립터 등 9개 계속사업에 총 245억원을 투입해 왔다.

2026년에는 기존 사업과 더불어 울포 청년활력 온(ON) 플랫폼, 별교꼬막 리본 프로젝트, 보성 올인원 창업 성장 이음사업, 보성 마을 집사, 청년 생활체육 인프라 조성 등 총 49억원 규모의 9개 신규사업을 추가로 가동한다.

핵심 전략은 거점 고도화다. 보성프롤라드 조성사업(70억원)을 통해 창업 거리와

울포해변 소통광장 등을 조성하는 한편, 울포 청년활력 온(ON) 플랫폼(25억원)을 연계 추진해 청년마켓, 주차장 등 청년활동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여자만 권역에는 별교꼬막 리본 프로젝트(10억원)를 통해 꼬막 자원 회복, 별교꼬막 패키지 개발, 꼬막거리 야간 경관 조성, 지역 크리에이터 육성 등 생활·관광인구 유입을 본격화한다.

보성 올인원 창업 성장 이음사업(8억원)은 우리 동네 함께 성장 클리닉, 보성상생 이음 프로젝트, 보성 엔(N)잡러 허

브, 보성 새책 키움터, 보성 두드림 스테이 등 5개 세부 사업으로 운영돼 창업부터 정착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보성군은 전남도·보성군 출생지본소득(1세부터 18세까지 월 20만원)을 지속 추진해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관내 학교 입학 장려를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관외 학생 전입 장려금, 보성군장학재단 장학사업 등의 교육지원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보성=임태형 기자 lth68@gwangnam.co.kr

## 순천, ‘치유·반도체’ 미래 성장 청사진 제시

시정 운영방향·핵심사업 점검

미래경제 등 4대 분야 전략 논의

순천시가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인 2026년을 맞아 치유에서 반도체까지 도시의 판을 넓힌다.

22일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시정 대회의실에서 “2026년 주요업무 실행계획 보고회”를 열고, 새해 시정 운영방향과 핵심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치유도시, 미래경제, 명품경주, 민생돌봄이라는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중점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치유도시 분야에서는 순천만·국가정원·도심 전역을 잇는 치유자원 복합화를 통해, 생태가 곧 산업이 되는 세계적 생태치유도시 모델을 만든다.

순천의 치유자원을 도심 전역으로 확장, 치유관광산업 육성지구 지정, 갯벌치



순천시는 최근 시정 대회의실에서 “2026년 주요업무 실행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유관광 플랫폼 구축, 치유 콘텐츠 산업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순천이 가진 고유한 자연기반해법(NbS)의 가치를 확장·공유하는 한편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치유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미래경제 분야에서는 문화콘텐츠·우주방산·바이오·반도체로 대표되는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도시의 경제구조 대전환에 나선다.

먼저 국가정원과 원도심을 잇는 에니메이션·웹툰 클러스터와 콘텐츠 인재양성 거점기관, 위성개발 및 우주방산 클러스터, 그린바이오 전진기지 등 기존의 3대 경제축 산업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나아

가 미래전략사업 확장에도 힘을 쏟는다.

시는 현재 순천 해룡·광양읍 일원의 미래첨단산단을 RE100 국가산단으로 지정해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산업을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산업용수와 친환경 에너지가 풍부하고 정주여건이 뛰어난 전남의 특장점을 활용해 확실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반도체 남방한계선을 넘어서는 남방성장선을 새롭게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명품경주 분야에서는 2028년 코스트코 입점, 2030년 경전선 개통 등 거시적인 도시 변화에 발맞춰 시민들의 생활공간을 전략적으로 구상해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나간다.

노란구 시장은 “2026년은 순천의 미래를 좌우할 결정적 시기다”며 “광주·전남 통합의 흐름 속에서 순천의 명확한 비전과 전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도시의 미래 성장을 이끌고,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



곡성군은 최근 군청 소통마루에서 전남과학대학교, 주식회사 청화팜과 함께 ‘곡성군 장미산업화 및 RISE 연계 산·학·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곡성 장미산업화에 산·학·관 ‘맞손’

군, 전남과학대·(주)청화팜과 업무협약

곡성군은 최근 군청 소통마루에서 전남과학대학교, 주식회사 청화팜과 ‘곡성군 장미산업화 및 RISE 연계 산·학·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해마다 수십만 명이 찾는 ‘곡성세계장미축제’의 브랜드 파워를 6차 산업으로 확장해 지역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장미 육묘 및 기능성 소재 연구(R&D), 시장성 있는 시제품 개발, 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 장미산업의 전 주기에 걸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대학 지원 체계인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과 연계해 추진된다는 점에

서 의미가 크다. 전남과학대학교는 장미 소재 연구와 함께 관련 분야 학생들을 지역 정주형 인재로 양성하고, (주)청화팜은 보유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제품 생산과 품질 관리로 산업화의 물꼬를 튼다.

군은 이를 뒷받침할 행정적 지원과 인프라 조성에 집중하고 장미 육묘장 조성, 관련 국·도비 공모사업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곡성 장미가 단순한 관광 자원을 넘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하는 첫걸음”이라며 “대학의 연구 역량과 기업의 노하우, 행정의 지원이 결합된 성공적인 산학관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유빈 기자 hnnews1@

구례, 동계 전지훈련 열기 ‘후끈’

축구·태권도 등 4종목 73팀 참가

구례군이 동계 전지훈련 최적으로 부상하며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이 구례를 찾고 있다.

22일 구례군에 따르면 이번 동계 전지훈련에는 축구 38팀(초등부 20팀·중등부 14팀·대학부 4팀)을 비롯해 태권도 19팀, 씨름 14팀 등 총 4개 종목 73팀이 참가했다.

군은 스포츠브리지를 개최해 단순 훈련을 넘어 경기력 점검과 전술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실전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또 구례 공설운동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을 활용해 안전한 훈련과 경기 병행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며 참가팀들의 높은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외에도 대규모 스포츠 행사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다음달 20일부터 26일까지 ‘구례 노고단배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을 개최해 전국 유소년 축구팀들이 한 자리에 모일 예정이다. 구례=김귀진 기자

## 장흥, 유치면 복지회관 그린리모델링 사업 완료

수계기금 활용 히트펌프 도입

전기요금 최대 80% 절감 기대

장흥군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상수원지역 주민특별지원사업으로 태양광발전 30kW와 고효율 히트펌프를 설치하는 ‘유치면 복지회관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최근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수계기금으로 상수원지역 주민복지시설에 히트펌프를 도입한 첫 사례로, 기존 화석연료 난방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한 것에 의미가 있다. 복지회관은 지역 주민들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시설로 사랑방 난방, 목욕장 급탕 등에 에너지 사용량이 많아 운영비 부담이 큰 편이다.

이번 그린리모델링사업을 통해 태양광과 히트펌프를 함께 설치함으로써 난방비는 최대 65%, 전기요금은 최대 80%까지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흥군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상수원지역 주민특별지원사업으로 태양광발전 30kW와 고효율 히트펌프를 설치하는 ‘유치면 복지회관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했다.

올해 영산강유역환경청 주민특별지원사업은 공모사업 방식은 소모성 지원 사업에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소득창출 연계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히트펌프 도입은 탄소중립을 선언에 그치지

않고, 생활 현장에서 실천한 사례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주민 주도의 에너지 전환·자립마을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gwangnam.co.kr

## 서울대남부학술림, 청소년 진로캠프 운영

서울대남부학술림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대 남부학술림 청소년 진로캠프’를 운영한다.

광양시와 협력해 운영하는 이번 진로캠프는 광양, 순천, 여수, 고흥 지역의 8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31명을 대상으로 남부학술림과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에서 진행된다.

2박 3일동안 진로캠프에는 강규석 교

수의 ‘숲으로 읽는 산림 트레킹상과 나의 미래’와 ‘나무타기 및 연료 분석’, 한희교수의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기여’, 강창구 교수의 ‘동물의 협동 행동 진화 실험’ 등의 특강과 현장실습을 연계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백운산휴양림에서는 학생들의 정서적 회복과 휴식을 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